

17

승리의 기도를 한 엘리야

왕상 17~18장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173장 (내가 어둠 속에서)



1.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기도였음을 압니다.
2.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왕상 18:21)

엘리야는 우리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약 5:17~18)



을 이해하기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기근 때에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 내내 끊이지 않게 하는 기적도 행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행한 가장 큰 일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함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과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한 일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그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생애는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혹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러울 만큼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약 5:17~18)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fruit. (Jas 5:17~18)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엘리아가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던 “성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엘리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제단을 준비했으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을 적어 봅시다(왕상 18:30~37).

준비한 제단	
엘리아의 기도	

- ②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약 5:17~18).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마 7:7~12, 눅 18:1~8, 22:40~46, 약 4:2~3, 겔 36:37, 살전 5:17).

엘리야의 모습 :

나의 마음가짐 :

- ③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적어봅시다.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 ④ 3번에 어려움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적어보고, 이를 분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눠봅시다.

나의 기도 :

이름 B/S	기도 부탁 내용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7: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시 40: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66:2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시 109:4

↑

시 116:2

↑

시 141:2

↑

시 143:6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한 어느 아프리카 사람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선교사가 복음 설교를 통하여 그곳에서 성취되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과 함께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어떤 작은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회심한 아프리카 추장이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앞에 성경책을 펼쳐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성경책을 쳐다보고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추고 위를 쳐다보면서 그의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성경책을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책을 읽다가 때로는 위를 쳐다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내려다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거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으로 나타납니다."



질문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마 25:1~13)에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 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다섯 처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등불을 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공통점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갔다는 점, 그리고 신랑의 소리가 나와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바로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눅 4:18)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시더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후 1:21~22)

또한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더불어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 20:27)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마 25:8)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씀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름이 조금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분명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천국가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지요(요 10:28~29). 그렇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고전 15:41) 그 행한대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더욱 근심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